



# ‘피겨여왕’ 김연아, 6년 만에 해외 아이스쇼 선다

‘피겨여왕’ 김연아(28)가 6년 만에 해외 아이스쇼 무대에 선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

김연아는 이번 아이스쇼 출연료 전액을 유니세프(UNICEF)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 아이스쇼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 동메달리스트인 히비에르 페르난데스 측이 주최한다. 페르난데스는 최근 올 시즌을 마치고 은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인 올댓스포츠는 17일 김연아가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레볼루션 온 아이스(Revolution On Ice)’ 아이스쇼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김연아가 해외 아이스쇼에 출연하는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이스쇼 이후 6년 만이다.

그는 “오랜만에 해외에서 열리는 아이스쇼에 참여해 기쁘고 설렌다. 처음으로 스페인 피겨 팬들을 만나는 자리다. 즐겁게 공연에 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레볼루션 온 아이스’는 21일 스페인 무르시아, 28일 라스팔마스 데 그란 카나리아, 28~29일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이번 아이스쇼에는 페르난데스를 비롯해 예브게니 플루센코(러시아), 제프리 버틀(캐나다), 가브리엘라 파파다키스-기욤 시즈롱(프랑스) 등이 출연하며 데이비드 윌슨과 산드라 베이지가 공동 연출을 맡았다.

뉴스스

스페인 개최 ‘레볼루션 온 아이스’ “오랜만에 설레...즐겁게 임할 것”

## 남자핸드볼 남북 단일팀, 22일부터 합동훈련

내년 1월10일 독일과 덴마크가 공동 개최하는 제26회 세계남자선수권대회에 단일팀으로 나서는 남북 남자핸드볼 대표팀이 본격적인 손발 맞추기에 돌입한다.

대한핸드볼협회는 남북 남자 핸드볼 단일팀이 22일부터 독일에서 합동 전지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 선수들은 이날부터 인천선수촌에서 1차 훈련을 하고, 21일 대회가 열리는 독일로 출국한다. 북한 선수단은 22일 독일 현지로 합류해 약 2주간 함께 호흡을 가다듬는다.

남자 핸드볼 단일팀 논의는 지난 5월초 국제핸드볼연맹(IHF)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IHF는 단일팀 선수 엔트리를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안으로 단일팀 구성을 주도했다. 이후 남북 체육분과회담과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총회에서 단일팀 합의와 합동훈련 논의가 이뤄졌고, 대회가 열리는 독일에 조기 입국해 전지훈련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단일팀의 명칭은 평창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코리아’로 정해졌다. 약어는 COR이다. 단일팀은 개최국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러시아, 세르비아, 브라질과 함께 A조에 편성돼 한국 핸드볼 사상 최초 남북단일팀 출전의 역사를 써내려 갈 전망이다. 단일팀은 다음달 11일 독일과의 개막전에서 첫 발을 댈다.

선수단은 한국 선수 16명과 북한 선수 4명으로 구성됐다. 한국 선수들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보다 평균 연령이 4세 이상 낮아졌다. 베테랑 정수영(하남시청)과 이승도, 조태훈이 중심을 잡고 구창원(이상 두산), 장동현(SK호크스), 최범문(충남체육회), 정재완(하남시청) 등이 힘을 실는다.

## ‘원맨쇼’ 메시, 하루에만 3골2도움 기록

라리가 323승 신기록...바르셀로나, 레반테에 5-0 승리

말 그대로 원맨쇼였다. 리오넬 메시가 절정의 감각을 자랑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

바르셀로나는 17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2018~2019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5-0으로 이겼다.

5골 모두 메시로부터 비롯됐다. 시작은 도움이었다. 전반 35분 상대 패스를 가로챈 메시는 수비수 3명을 몰고 집주했다. 드리블로 공간을 만든 메시는 자유롭게 있던 루이스 수아레스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 득점을 이끌어냈다.

8분 뒤에는 직접 골을 넣었다. 드리블 돌파 후 오른쪽 슈트로 2-0을 만들었다.

메시의 득점 퍼레이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후반 2분에는 호르디 알바의 패스를 받아 왼발 땅볼



슈트로 멀티골을 달성했다. 후반 15분에는 골문 앞에서 밀어넣기로 헤트릭을 완성했다. 경기 종료 직전에는 헤라르드 피케에게 킥패스를 내

줘 도움을 추가했다. 이날 승리로 메시는 라리가 통산 323승 기록, 바르셀로나 전 동료인 사비 에르난데스(322승)를 제치고 개인 최다승 달성자로 우뚝 섰다.

시즌 기록에서도 압도적이다. 14골, 10도움으로 두 부문 모두 1위를 지켰다. 바르셀로나 역시 승점 34(10승4무2패)로 2위 세비야(승점 31·9승4무3패)에 앞선 선두를 질주했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창·강릉 국제대회 없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동계스포츠의 계절이 다시 왔다. 그러나 평창과 강릉의 올림픽 경기장들은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평창올림픽을 치르는 데 사용된 경기장은 12곳이다. 이 가운데 6개 경기장을 새로 지었고 나머지 6개 경기장은 기존의 시설을 보완해 사용했다. 경기장을 새로 짓고 보완하는 데 1조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다.

이 경기장들의 사후 활용 방안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개막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회는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다면서도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을 걱정했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올림픽 때 사용된 경기장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국제대회 유치지만, 이렇다 할 국제대회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8~2019시즌 올림픽을 치른 경기장에서 국제대회가 열리는 종목은 스키뿐이다. 12월 중순 크로스컨트리 국동컵, 내년 2월 초·중순 알파인 스키 국동컵, 2월 중순 스노보드 월드컵 등 국제스키연맹(ISF) 대회가 열린다.

빙상의 경우 올해 12월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와 내년 1월 말 세계주니어쇼트트랙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 했지만,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내부 사정으로 취소됐다. 이마저도 평창올림픽 쇼트트랙·피겨스케이팅 종목 경기가 열린 강릉 아이스 아레나가 아닌 서울 목동빙상장으로 유치가 됐다.

빙상연맹은 2020년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와 피겨스케이팅 4대륙 선수권대회를 국내 유치할 계획이지만, 역시 서울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는 시설을 놓고도 서울 개최를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는 내년 5월부터 운영 주체가 강릉시로 이관돼 강릉 실내체육관으로 사용된다. 빙상 전용 경기장이 아니어서 대회를 치르려면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데, 지자체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또 내년 5월이나 강릉시가 운영 주체가 되므로 현재로서는 대회 개최를 위한 제반 요건을 협의하기가 쉽지 않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업무도 내지 못하는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국제대회 유치 추진을 논의할 대상 자체가 없는 탓이다.

평창올림픽 열매 종목 경기가 열린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도 마찬가지다.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해 잠정 폐쇄된 상태여서 대회 유치를 논의할 수도 없다. 관리 비용의 국·도비 부담 비율도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 예산마저 줄었다.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의 일을 맡을 2억원이 없어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은 평창에서 한 번도 훈련하지 못했다.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은 국내에 반듯한 경기장이 생겨 국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부 차원에서 평창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산 지원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 운영이 원칙이라는 자세만 고수하고 있다.

### ■ 실이 있는

#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경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담 구레군은 지리산자연, 갈매나무, 화엄사, 설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북아재-기단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